

春梅秋菊各有時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이 태 로

『경력사항』

- 현) 주 슬로바키아대한민국대사관 대사
- 주 몽골대한민국대사관 대사
- 외교통상부 의전기획관
- 외교통상부 의전심의관
- 주 일본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 주 중국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 1988년도 제22회 외무고등고시 수석합격

Prologue

1988년 4월 8일 首席合格이라는 소식과 함께 치루하게 길었던 考試生活은 幕을 내렸다. 결국 고시라는 작은 연극 속에서 主役이 된 것이다. 수 많은 助役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러나 이제 그 고통스럽던 助役의 순간들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나의 고시생활은 5共和國과 함께 시작하여 5共和國과 함께 끝났다. 물론 방위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작과 끝맺음 사이에 7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 긴 7년 동안에 행운아로 연극 무대에 등장한 순간도 있었고, 한 순간의 실수로 스타에서 엑스트라로 강등되었던 비극의 순간도 있었다. 또 절망과 좌절속에서 조역생활을 한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연극은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한명의 주역만 남겨 놓고 끝나 버렸다.

I. 혼돈의 시기

유선 말기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듯 大學生活도 우울했다. 個人的으로는 大學入試의 실패가 있었고 時代的으로는 10·26과 5·17을 학부 2,3 학년 때 맞이했다. 韓國外國語大學校에 입학한 만큼 막연하게 外試를 생각했지만 2학년 때까지는 술에 빠졌고 H를 알게 되면서 3학년 때는 사랑의 화살에 신음하였다. 달콤한 사랑의 감정은 패배감을 마비시켜 주었지만 인생의 방향을 잃게 했다. 이때 謀同期 L군과 R군의 외시준비는 나에게 자극을 주었다. 그들은 다음해 제15회 때 나란히 합격하였다.

3학년 겨울방학은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어 주었다. 집(대구)에 내려가서 45일 정도 集中的으로 제1차시험 준비를 하여 제15회 시험에서 제1차시험 과문을 간신히 넘을 수 있었다. 이때 外試合格 정원이 70명으로 상향조정되었던 관계로 제1차시험도 200명 이상 합격시켜 요즘보다 비교적 쉬웠다.

1981年 한해는 바쁜 한해였다. 사랑과 考試를 병행해야 하는 수퍼맨이 되어야 했다. 지금 생각하면 사랑을 主로 하고 고시를 從으로 하여 틈틈히 공부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여름 방학까지는 영작 문학원에도 다니고 경제학 학원에도 다니면서 비교적 충실하려 노력했다. 2학기때는 下邸하여 大邸에서 공부했다. 대구 시내에 있는 영남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내가 도서관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내 가방이 도서관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司試, 行試를 준비하던 고등학교 同期들과 당구와 술로서 푸르고 푸른 가을 하늘을 볼 살라 버렸다. 결국 절대 학습량의 부족과 합격정원에 대폭적 감소(70명에서 20명으로 조정되었음)라는 大勢 앞에서 행운을 예상문제 적중에 걸고 제16회 2차에 임했다. 계속 예상문제가 적중했다. 행운의 酒神과 精神이 정녕 나를 돕고 있는가? 문제는 국민윤리와 외교사에서 발생됐다. 40점과 43점을 받았다. 외교사는 전공이지만 Asian과 COMECON에 완전히 녹아 버렸다. 학습량 절대부족에

서 오는 당연한 결과였다. 영어, 경제학, 국제정치학의 고득점에도 불구하고 아깝게 합격자 명단에서 빠져 버렸다. 1982년 6월, H때문에 군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대학원 대신 방위입대를 하고 말았다.

II. 면접시험에서의 낙마

방위복무기간 동안 고시와 점점 멀어져 갔다. 하루하루 보내는 것조차 피곤했다. 집안의 파산으로 경제적 압박이 심해져 外試에 대한 열망은 점점 줄어들었다. 1983년 7월 방위를 마치고 나니 大學院도, 考試도, H도 나에게에는 없었다. 이 경우를 설명해 주는 三者同落說이 있다. 시험 떨어지면 돈 떨어지고 여자도 떨어진다. 나도 例外的 경우는 아니었다. 결국 1983년 가을, 취직을 결심했다. 그러나 운명은 또 한 차례 소용돌이쳐, 평점이 3.0이 되지 않는 성적으로 어느 기업에도 취직할 수 없었다. 그 해는 거의 모든 기업이 서류전형을 했고 政外科출신을 기피하였기 때문이었다. 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 입학시험도 떨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외시에 채도전 하는 것뿐이었다. 1983년 12월 31일 만취가 되도록 술을 마셨다. 괴로웠다. 너무 괴로워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셨다.

1984년 1월 2일부터 30일 작전에 몰입했다.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공부했다. 그 후의 공부하는 습관에 이때 붙은 것 같다. 또 나에게 행운인지 제1차시험이 예년보다 10일정도 연기된 관계로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다. 제2차시험은 그냥 눌러 갔다. 과목조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2차시험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제19회를 겨냥하는 수 밖에 없었다.

3월이 되면서 제19회를 대비하여 작전을 세웠다. 논문과목은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 있었고 영어도 큰 부담은 없었다. 그러나 中國語의 경우 해마다 시험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문제였다. 1학기 동안에는 영어와 중국어에 중점을 두면서 논문과목을 가능하면 9월까지 폭넓게 多讀하려고 노력했다. 하루에 12시간씩 확보할 수 있었던 관계로 거의 120페이지씩 읽어 나갔다. 책을 한권한권 통독해 나가는 재미도 있었고 실력이 부족부족 늘어 간다는 느낌도 들어 앞뒤 돌아보지 않고 공부만 했다. 1년동안 5萬페이지 讀破를 目標로 세웠다. 그러나 5萬페이지는 읽지 못했다. 또 1년 내내 총력전을 전개할 수 있다는 계산 下에서 1984년 1년을 권투의 마지막 15 Round라고 생각하고 봄부터 총력을 다했다. 10月 부터는 더 이상 공부범위를 확대시키지 않고 아는 지식을 체계化하여 단시간내에 정리

할 수 있는 Sub-note를 작성했다. 교과목에 대한 Sub-note 作業은 12월 초순까지 계속되었다. 그 후 제2차시험까지 약 80일은 Sub-note와 교과서를 3:1의 비율로 계속 반복하여 Sub-note를 거의 암기하다시피 했다. 공부는 학교도서관과 外試 研究室을 번갈아 가면서 했다. 研究室은 조용한 나머지 너무 적적했다. 반면 도서관은 시끄러워 集中力이 떨어지지만 분위기전환에는 매우 좋았다. 하루 일과는 새벽 1時 30분에 취침하여 오전 7時에 기상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이었다. 마지막에는 새벽 4時に 집에 가서 아침 9時 30분에 도서관에 나왔다.

지금 생각해도 지독하게 공부했던 것 같다. 하나의 공부하는 기계였다. 그 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보지 못했다. 또 하나 고시생활에 活力素가 된 것은 大學院 수업이었다. 1984년 9월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대학원과 考試를 병행했다. 고시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었고 국제정치학과 국제법을 잘 정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노력한 덕분에 8등이란 상위권 성적으로 제2차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인생의 수레바퀴는 수렁을 향하여 빠져 들어 가고 있었다. 꼭 짜여진 생활로부터의 갑작스런 탈출에서 오는 無重力 상태와 방심은 제3차 면접시험에서 분투를 삼키게 했다.

동네 아이들이 개구리가 사는
연못가에 놀러 왔다. 장난으로
개구리를 향하여 돌을 던졌다.
그러나 장난으로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는 죽었다.

나도 죽었다. 개구리처럼 장난으로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 15분간의 면접시험은 개구리를 죽일 수 있을 정도로 全能한가? 하여튼 운 나빠 돌을 맞은 개구리는 죽어야 했다. 제3차 합격자 명단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었지만 떨어졌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를 발견하였다.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발걸음은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있었다. 용기를 내어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그녀 옆에는 남편이 같이 있었다. 당황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피했다. 마침 토요일 오후여서 행인이 많아 그녀의 눈에 띄지 않고 피할 수 있었다. 그때 비로소 시험에 떨어졌다는 비참한 느낌이 들었다. 그제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다. 그녀는 끝까지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

나는 울었다. 가슴속으로 울었다. 쪽 뺏어버린 개구리처럼 나를 위로하는 수 많은 공허한 어귀들이 귀가를 스쳐갔다. 그러나 가슴에 와 닿는 漢詩 한 구절이 있었다. "春梅秋菊各有時" 바로 이것이다. 아직 가을이 아니다. 봄에 어찌 국화가 필 수 있는가? 국화는 가을이 되어야만 된다.

Ⅲ. 방향의 제1차시험

1985년 1학기는 술과 함께 보냈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총격たく으로 작년처럼 集中할 수 없었다. 술 마시는 날이 더 많아져 갔다. 인생의 수레바퀴는 이 때에도 더욱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었다.

1,2차 同時合格을 위해 12월 중순까지 제2차시험 준비와 대학원 Reports를 끝내고 12월 하순부터 제1차시험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20회 제1차시험 일정이 例年보다 보름정도 앞당겨지는 바람에 제1차시험을 한 달도 채 준비할 수 없었다. 정작 결정적인 사건은 시험 당일에 발생했다. 오전 시험시간이 시작하기 직전에 시험문제지를 들고 들어온 감독관은 나와 전혀 모르는 사이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가까운 사이도 아닌 C였다. C는 19회 때 나와 같이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제3차면접시험 준비를 같이 한 外大同門이었다. 그는 제3차시험까지 무사히 통과하여 시험감독관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서로 눈길을 피했다. 나는 부끄러웠고 그는 미안했을 것이다. 시험은 시작되었다. 당황한 상태여서 헌법 1번 문제부터 내용이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점점 더 안절부절해졌다. 영어를 먼저 풀었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다시 政治學을 풀었다. 정치학은 마음의 안정을 어느 정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시험장에서 뛰쳐 나가고 싶었다. 끊임없는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이 저주스러웠다. 나는 고지의 실패작인가? 결국 오후시간의 본전에도 불구하고 제20회 제1차시험은 자존심 상하는 기록을 남기고 끝나 버렸다.

Ⅳ. 고시생활의 지루한 연장

1986년은 좌절과 포기 of 한해였다. 1학기 동안에는 억지로 論文을 써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가을이었다. 인생의 좌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흔들렸다. 많은 시간을 술집에서 보냈다. 취지도 생각해 보았다. 外試는 아득히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괴로웠다. 박사과정 입학시험도 떨어졌다. 또 다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지고 外試를 향하여 내

몰려야 했다. 1986년 12월 하순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1,2차시험 동시를 위해 7주 작전을 세웠다. 4주간 제1차시험 준비를 하여 제1차시험을 통과하고 바로 3주간 총력을 다해 제2차시험을 준비한다는 주어진 상황(해는 지고 갈 길은 먼 상황)에서 발악과 같은 高集中 전략이었다. 7주 동안에 매일 15시간 이상씩 공부했다. 제1차시험은 가까스로 통과할 수 있었다. 또 3주만에 Sub-note도 4번씩이나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내 자신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Sub-note가 짧은 시간에 보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것이 문제이긴 했지만 나의 전략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갔다. 그러나 어차피 제21회때는 합격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국민윤리 25點짜리 문제를 잘못 읽어 버렸다. “환경위기의 대책”이란 문제에서 환경을 단순한 환경이 아닌 국제정치 환경으로 착각하여 동북아 4강체제와 남북관계를 설명해 주는 틀을 범했다. 思考가 너무 국제정치학化 하여 발생된 사건이었다. 환경문제는 사회학을 선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20점이상 받을 수 있었던 문제였다. 환경문제에서 거의 점수를 못 받아 국민윤리를 50點 받고 말았다. 그리고 전공과목인 국제정치학과 국제법에서 문제를 Oversence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평균 2점이나 모자라는 성적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정말 아까웠다. 결국 사소한 실수가 지긋지긋한 고시생활을 1년 더 연장시켜 주었다.

V. 수석의 영광

1987년, 마지막으로 外試를 밀어 붙쳐 보기로 했다.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학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영어와 중국어에 1학기 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여름 방학 때에는 새벽에 중국어학원도 다녔다. 중국어는 골치 아픈 과목이었다. 중국어는 實用的인 언어인지는 모르지만 시험용 언어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는 언어이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점수가 무척 짜다.

6月에는 후기 박사과정 입학시험에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아마 여기서부터 수석의 퍼레이드는 시작된 것 같다. 박사과정 진학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쏜보장의 의미다. 이론과 실제의 겸비라는 의미에서 선택했다. 외교관생활에서 반드시 이론적 배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과 관계되는 과목들을 수강과목으로 신청했다. 대학원 수업은 知的 深度를 더욱 더 깊게 해 주었다.

논문과목은 기존의 기초 위에서 체계와 논리 그리고 상호연관성 수립과 파악에 중점을 두어 가능한 빠진 부분이 없도록 폭 넓게 준비했다. 그러나 작년 경

험에서 도출된 각 과목마다 “Sub-note의 200폐化”는 실패했다. 그 결과 Sub-note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마지막에 정리하는데 약간 혼선을 가져 왔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출제되어도 평균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놓았다. “예상을 뒤엎는 문제를 막아라” 이것이 87년도 Slogan 이었다. 12월 하순부터 매일 소과목을 2-3시간 배분하여 2달간 계속 Sub-note를 반복해서 보았다. 생활은 지극히 규칙적이었다. 저녁 10시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 후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새벽 3시에 하숙집으로 돌아 왔다. 아침을 먹고 9시까지 학교 도서관에 나갔다. 體力의 한계를 느끼는 생활이었다. 그러나 2개월 정도는 견딜 수 있었다. 감기가 겨울내내 떨어지지 않아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시험첫날 첫 과목인 국민윤리는 시간 배정의 실패로 25점짜리 하나를 잘 쓸 수 있었지만 잘 쓰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53.33점). 이 영향이 오후시간에도 미쳐 영어도 잘 칠 수 없었다(62.66점). 컨디션도 좋지 않아 식은땀이 계속 등줄기를 타고 내렸다. 절망감마저 들어 시험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지난날의 피땀이 이틀째부터 빛나기 시작했다. 이틀째는 難과목인 국제법과 경제학이었다. 폭 넓게 공부한 덕분에 국제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던 외교보호와 직무보호도 쓸 수 있었다. 경제학 50點짜리도 論點을 간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국제법 1번 “조약의 제3자효력” 문제는 시험전날 확인하지 않는 문제였다. 묘하게 그 문제가 정리된 Suh-note만 빠트리곤 보지 않았던 것이다. 크게 중시한 문제도 아니고 해서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기억할 수 없었다(59점). 그리고 경제통합문제는 경시하고 있었던 문제라 Sub-note를 볼 때 그냥 가볍게 이해하면서 지나가 옛날 암기했던 기억을 되살려 엉성한 답안을 쓸 수 밖에 없었다(70점). 3일째 국제정치학은 예상밖에 외교사문제만 나와 당황하였지만 침착하게 論理的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동원했다. 25점짜리 “세식 균형원칙”문제는 출제자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없었다. 비교적 무난히 쓸 수 있었지만 전공과목이 고득점 예상과목인 점을 감안하면 약간 불만스러웠다. 그러나 점수는 후하게 받았다(79.66점). 중국어도 투자한 많은 시간 덕분에 무난히 칠 수 있었다. 그러나 채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에 인색한 중국어교수님이 하는 것이다. 만족할만한 점수를 받았다(67.33점). 3일째 치고 나서 돌아오는 전철속에서 점수계산을 해 보았다. 조금 낮게 잡아도 평균 61~62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지막날 사회학만 무사히 넘기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회학 문제지를 받아 보는 순간 합격을 확신했다. 50점짜리 문제가 최신이론인 I. Wallerstein의 World system theory가 나왔다. 이것은 대학원에서도 취급했던

이론이었다. 반면 일반사회학 교과서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생소한 이론이었다 (71.66점).

최종적으로 점수계산을 해보니 63~64점 정도 될 것 같았다. 그러나 국제법과 경제학에서 생각만큼 잘 쓰지 못 한 두 문제 때문에 한 구식이 개운하지 못했다. 심지어 제2차시험 발표 직전에는 떨어지는 악몽을 계속 꾸었다. 수석을 크게 기대할 수 없었던 것도 첫 날 두 과목과 국제법과 경제학의 놓친 문제 때문이었다. 시험결과는 국제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중국어가 생각보다 잘 나온 반면 국제법이 기대에 미달했다. 그러나 국제법 점수는 상대적으로 볼 때 아주 좋은 점수였다. 결국 성적은 기대보다 높은 66.23점을 얻었다.

VI. 君何先達我何遲, 春梅秋菊各有時

길고 긴 고시생활은 수석의 영광으로 끝났다. 수석은 1984년도의 피맛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올해처럼 이렇게 예상을 뒤엎는 문제가 많이 나온 해에 폭넓은 공부라 아니었다면 그 많은 실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菊花였다. 국화가 제 아무리 봄에 피고 싶어도 필 수 없는 것이다. 국화는 매화처럼 겨울 봄에 필 수 없는 것이다. 매화와 국화는 각각 피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이다. “春梅秋菊各有時” 7자를 가슴에 품고 가을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제 이 7자를 악전고투하는 노장들에게 격려의 의미로 주고 싶다.

君何先達我何遲

(그대는 어찌 먼저 도달하고, 나는 어찌 지체하는가?)

春梅秋菊各有時

(그러나 봄매화, 가을 국화는 각자의 때가 따로 있다)

마지막으로 “春梅秋菊各有時”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끈기 있게 가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형님, 매형, 교수님들 그리고 따뜻한 親友, 후배들의 物心兩面의 아낌없는 도움과 격려가 있었음을 밝혀둔다.